

# 지역예술인들 “문화예술로 평화를 기원합니다”

### ‘광주예총 아트 페스티벌’ 9월2~3일 5·18 민주광장

#### 무등예술단·래퍼 조광일·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 등 참여

‘지역 예술인들이 펼치는 종합 예술 공연’ ‘2022 제 13회 광주예총 아트 페스티벌’이 오는 9월 2~3일(오후 7시 30분) 5·18민주광장에서 펼쳐진다.

지역 예술인들이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펼치는 화합과 나눔의 장인 광주예총(회장 임원식) 아트 페스티벌은 광주지역 10개 문화예술단체(건축·국악·무용·문인·미술·사진·연극·연예·영화·음악협회)가 참여한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 간 실내 행사로만 진행됐던 페스티벌은 올해 다시 한번 야외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이번 페스티벌 주제는 ‘전쟁과 평화’ 슬로건은 ‘예술의 날개 찬란한 평화’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전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분쟁을 예술을 통해 승화하고 평화를 기원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차두옥 광주영화인협회장을 총감독으로, 이경원이 감독, 운영주가 연출을 맡았으며 ‘뚝딱이 아빠’로 알려진 코미디언 김종석이 사회자로 나선다.

첫날 공연은 무등예술단의 고전무용, 팬플룻, 난타공연으로 시작한다. 이어 영화인협회와 음악협회의 클라보 무대인 ‘영화음악공연’을 선보이며 금관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된 졸리브라스사운드가 ‘어벤져스 ost’, ‘라라랜드 ost’, ‘디즈니 매들리’를, 소프라노 이지연이 ‘넬라판타지아’를 연주한다.

또 크로스오버 앙상블 친친클래식이 ‘Tonight’, ‘Volare’, ‘Butterfly’ 무대를 준비했다. 이어 ‘전쟁과 평화’ 다큐멘터리 더빙소와 전통무용 ‘청풍명월’, ‘우도농악’을 선보인다.

중·장년층을 넘어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고자 마지막 공연의 피날레는 지난 2월 Mnet 쇼미더머니10에서 우승한 광주출신 래퍼 조광일이 장식한다.

3일 공연은 댄스컴퍼니 Sun&Friends와 나빌

래라 예술단, 빛고을 댄서스 등 광주를 대표하는 무용단체들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동작들을 선보이며 무대를 시작한다.

이어 예술공방 바람꽃이 위안부 할머니의 어린 시절과 해방 이후의 삶을 회상하는 내용의 노래와 악곡 ‘기억해주세요’를 선보이며, 가수 진국리와 G-POP페스티벌 대상 수상자인 스트릿퍼포먼스 댄스팀 illbro, 가수 향기 등이 무대에 선다.

이번 공연은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에 맞춰,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과 다문화 어린이들로 구성된 샹송싱어어린이합창단이 아름다운 노랫말을 선사한다. 또 테너 윤승중과 첼리스트 안톤 콘트라텐코도 만날 수 있다.

이번 축제는 그간 분리돼 진행돼왔던 전시와 공연을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

광주전남건축가회는 현상공모에 당선된 건축가 16명의 작품을 전시하며, 사전 및 현장 접수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물 투어를 진행한다.



래퍼 조광일

광주문인협회는 작가 70여명이 기증한 창작 작품 도서전시회를 열고 작가가 현장에서 직접 사인해 도서를 증정한다. 특별히 고려인마을 문화관에 국가기록물로 전시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출신작가들의 작품 20여점을 전시한다.

광주미술협회는 참여작가 7명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픽셀아트 퍼포먼스’ 프로젝트를 기획했으며, 페이스페인팅 부스를 운영한다. 광주사진협회는 참여작가 40여명의 다양한 예술작품을 전시하며, 가족사진과 장수사진 무료 촬영 이벤트를 마련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졸리브라스사운드’

## ‘제로베이스 in 전남’ 온라인 경매 열린다

#### 천영록·송하영 등 6명 참여...31일까지 서울옥션 강남센터 전시

‘제로베이스 in 전남’은 전남문화재단이 지역 작가들의 서울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이 기획은 국내 최대 경매회사인 서울옥션과 공동 기획한 프로젝트로 경매 참가자를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후 서울옥션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참여 작가를 선정한다.

서울옥션 홈페이지에서 열리는 경매에서는 주최측이 작품 소개와 참여작가들 작품 세계에 대한 인터뷰 등을 온라인 전시장에 올려 컬렉터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로베이스 in 전남’은 경매 시작가가 0원으로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가격 결정을 전적으로 구매자들이 결정하게 되는 경매로, 지난 2년간 출품된 작품 145점이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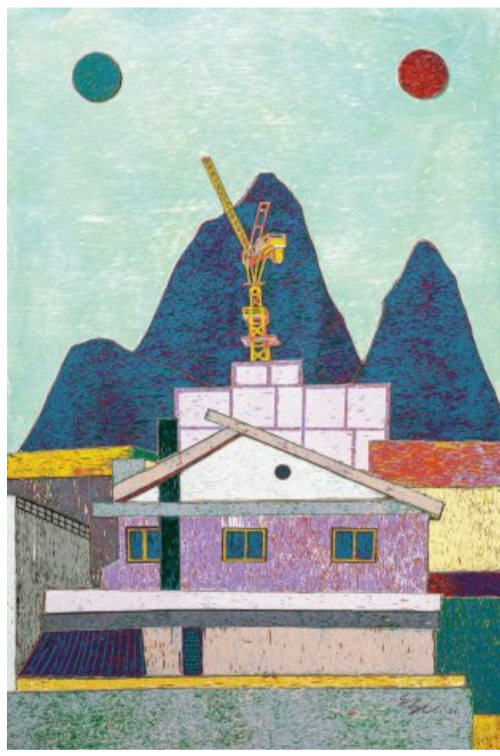
낙찰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첫 해였던 2020년에는 고차분·한임수·정선영·김옥진 작가 8명의 작품을 대상으로 경매가 진행됐으며 총 낙찰금액은 7475만원이었다. 지난해 정선영·한임수·박채성·공기명·위성웅·추순정·최인경 등 총 7명이 참여해 66점을 선보인 경매의 총 낙찰가는 8800만원이었다.

올해 ‘제로베이스 in 전남’에는 전남 출신 천영록·송하영·최윤아·서영실·유동명·나지수 작가 등 총 6명이 참여한다. 전시작은 모두 59점으로 오는 31일까지(오전 10시~오후 7시)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전시된다.

31일 마지막 날 오후 2시 서울옥션 웹페이지에서 온라인 경매가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서영실 작 ‘시간여행자의 상’

## ACC 국제포럼 ‘예술로 인류세 너머를 상상하다’

#### 31일, 한·중·일 과학자·예술가 등 5인 참여

유럽은 최근 500년 만의 가뭄이 덮쳤고 우리나라도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다수의 침수 및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유엔 산하 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량을 1.5도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시간이 30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그만큼 기후위기는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다.

인류가 초래한 환경 파괴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미래를 일컬어 ‘인류세’라고 한다. 인류는 갈피길에 놓여 있다.

예술로 인류세를 상상하는 국제 포럼이 열려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이강현)은 ‘예술로 인류세 너머를 상상하다’를 개최한다. 오는 31일 오후 4시 30분. 한국과 중국, 일본의 과학

자·예술가 등 전문가 5인이 인류세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 박범순 센터장과 포항공과대학교 IT 융합공학과 김진택 교수가 참석한다. 박 센터장은 ‘인류세의 세 가지 이미지’를 주제로 기조발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지속 가능한 미래 디자인: 네트워크 슈프트’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외에선 중국 중앙미술학원 과학예술연구원 짜오리 부원장을 비롯해 루쉰 미술학원 장하이타오 석좌교수, 일본 NTT ICC 하타나카 미노루 수석 학예연구사가 비대면 발제자로 참여한다.

ACC는 미디어아사드 ‘반디산책’ 전시 참여 작가와 대화, 전시 개막 투어 등 다양한 토론회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2022 ACC 미디어아사드 ‘반디산책: 지구와 화

해하는 발걸음’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개최된다. 장소 특장적 융복합 예술작품을 소개하는 기획전으로 올해의 주제는 ACC의 콘텐츠 테마 ‘자연 그대로’라는 주제에 따라 관객 친화형 야외 전시로 진행된다.

전시는 과거 지구의 필요로했던 생태계를 기억하고 현재의 지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면서 탄소중립 필요성에 공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갖자는 의미다.

한편 ‘반디산책’은 ‘2022 ACC 지역작가 미디어아트 공모’를 통해 선정된 2명의 작품을 포함 총 16개 팀 27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앞서 언급한 대로 국내외 학자와 큐레이터 5명의 발제로 인류세 너머의 융복합 예술을 탐구하는 국제 포럼과 함께 개막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산 애니메이션 ‘쥬라기캡스’ 극장판 개봉

#### 9월 7일 ‘공룡시대 대모험’

광주 기업의 대표 애니메이션이 추석 극장가 공략에 나선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다음 달 7일 광주 콘텐츠 기업 ㈜스튜디오버튼의 TV 애니메이션 ‘쥬라기캡스’ 극장판 ‘공룡시대 대모험’(65분·사진)이 개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작품은 이날 전국 300여 개 상영관에서 동시 개봉한다.

‘쥬라기캡스 공룡시대 대모험’은 진흥원 ‘2020 CG활용프로젝트 제작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돼 지난 2년 동안 제작됐다.

3D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이 애니메이션은 쥬라기캡스가 탄생하게 되는 기원을 다루고 있다. 주인공 공룡과 쥬라기캡스가 악당 어부바단이 현대 시대로 납치해온 중생대 공룡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공룡시대로 시간여행을 하고, 6500년 전의 쥬라기시대를 만나 쥬라기캡스가 탄생한다는 줄거리다.

‘쥬라기캡스’ 극장판 예매 관객들을 대상으로



스티커북과 종이 조립 장난감(따서) 등 사은품을 선착순 증정하는 행사도 마련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웹툰 ‘광주로망스’ OST ‘어떤날’

#### 가수 ‘루민’ 노래...하반기 두 번째 주제곡 발매

광주의 명소 동명동과 양림동 일대를 배경으로 한 웹툰의 주제곡(OST·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발매됐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 기업 ㈜스튜디오버튼이 제작한 웹툰 ‘광주로망스’(사진)의 주제곡 ‘어떤 날’이 발매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작품은 진흥원의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의 ‘광주 관광브랜드 미디어믹스 콘텐츠 개발’ 대상으로 선정됐다.

‘광주로망스’는 광주 동명동, 양림동 일대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이야기 곳곳에 광주의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콘텐츠가 들어갔다.

이번 주제곡 제작에는 대중음악 전문제작사인 ‘블랙하우스’가 참여했으며, 가수 ‘루민’이 노래 불렀다.



올해 하반기에는 ‘광주로망스’의 두 번째 주제곡이 발매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산업화디자인 프로젝트’ 토론회...31일 DJ센터

광주디자인진흥원과 지역디자인협회 단체 등은 31일 오후 4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 3홀에서 ‘2022 광주산업화디자인 프로젝트’ 디자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시각포장 디자인(위원장 남호정 교수), 제품디자인(이진열 교수), 공간·환경·공공디자인(신용주 교수), 멀티미디어·서비스 디자인(윤봉식 교수), 청년분과(정정호 교수) 등 5개 분과로 나눠 39명의 참가자가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참가자들은 디자인 산업의 미래를 위해 무어를 준비해야 하는지, 지역 디자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양적으로 성장한 지역 디자인 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지역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도출과 각 디자인 분야 전문가들의 교류를 통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의 장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발레로 만나는 안중근 의사와 돈키호테

#### 빛고을시민문화관 신규 기획 M발레단 스페셜 갈라 9월 3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의사의 생애를 그린 드라마 발레와 세르반테스 소설 ‘돈키호테’를 토대로 한 희극 발레가 관객을 찾아온다.

이번 무대는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의 신규 기획 프로그램인 M발레단(대표·예술감독 문병남) 스페셜 갈라 ‘New & Classic’으로 기획됐다. 빛고을시민문화관 오는 9월 3일(오후 3시).

먼저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은 지난 2015년 ‘무용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선정작’으로 2021년 ‘예술의 전당 기획공연’으로 다시 제작됐다. 이후 2022년 ‘제12회 대한민국발레축제 개막작’으로 예술의전당 무대에 올랐다.

작품은 탄탄한 이야기와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안무를 바탕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돈키호테’는 스페인의 열정이 가득한 희극 발



레로 2021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탄생했다. 국내에서는 거의 시도되지 않은 클래식 발레를 안무화하여 선보이는 작품으로 박진감 넘치는 전개가 특징이다.

한편 한국발레의 정체성 구축을 모토로 창단된 M발레단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창작발레를 만들어가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